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05호 2006년 5월 21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기쁨과 희망의 전달자들

회헌 제26조

1. 프란치스코는 고통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기쁨과 신뢰를 체험하였다.

-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체험,
-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하리라는 굳은 믿음,
-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 공동체 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찬미할 수 있다는 체험.

(회칙 19) 그러므로 회원은 삶의 희망과 기쁨에 '예'하고 응답한다. 회원은 수많은 고뇌와 비관주의에 대항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2. 형제회 안에서, 회원은 상호간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나간다. 회원은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야고보 1,26-27

각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태에 의지해야 하며 그 가운데 큰 평화와 순명, 겸손과 침묵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느님 안의 삶은 생활에서

형제들은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비방하거나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 것을 명심하고, 이와 반대로 하느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면 그때마다 침묵을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보잘것 없는 종입니다”하고 겸손되이 대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 성을 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라고 사도가 말하듯이 서로간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헐뜯지 말 것입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미움을 삽니다”라고 적혀있듯이 누구를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면서 온순해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다른 사람들의 미미한 결점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 제1회칙 제11장

단순성의 길

복음적 가난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사람을 해방시킨다. 세상 근심 걱정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 가고 그 대신 마음을 야심과 거짓으로 어둡게 만든다. 그와 반대로 온갖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는 복음적 가난은 정신적인 장애물을 물리칠 힘이 있다. 그 결과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벼움과 자유스러움, 깨끗함과 개방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면처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 발길을 비추는 사랑에 이끌려 진리 안에서 살고 밝은 생활을 하게 된다.

프란치스코의 영적 시야에 의하면, 우리가 자아 포기를 하는 만큼 우리 안에 덕행들이 싹트고 자라므로 모든 덕행은 복음적 가난이 가져다주는 해방의 효과에서 유래한다: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먼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덕행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난과 직결되는, 나아가 가난의 기동도 되고 열매도 되는 덕행들 중 신덕 다음으로 망덕을 꼽을 수 있다. 망덕이란 지상 여정 중에 신앙의 눈을 항상 내세의 보화에 집중하는 믿는 자의 자세이다.

이외에도 보통으로 수덕학 교과서가 잘 다루지 않는 몇 가지 복음적 덕행들이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높이 평가하는 이 덕행들 중에 단순성과 기쁨을 들 수 있다. 단순성과 기쁨은 그리스천 체험을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꽃피는 덕행들이며, 결국 성령 현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기 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쁨과 단순성”의 분위기를 살았다 (참조: 사도2,46: 로마 12,9: 2고린 8,2; 9,11; 1,3).

—‘프란치스코 소명’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정의 평화 환경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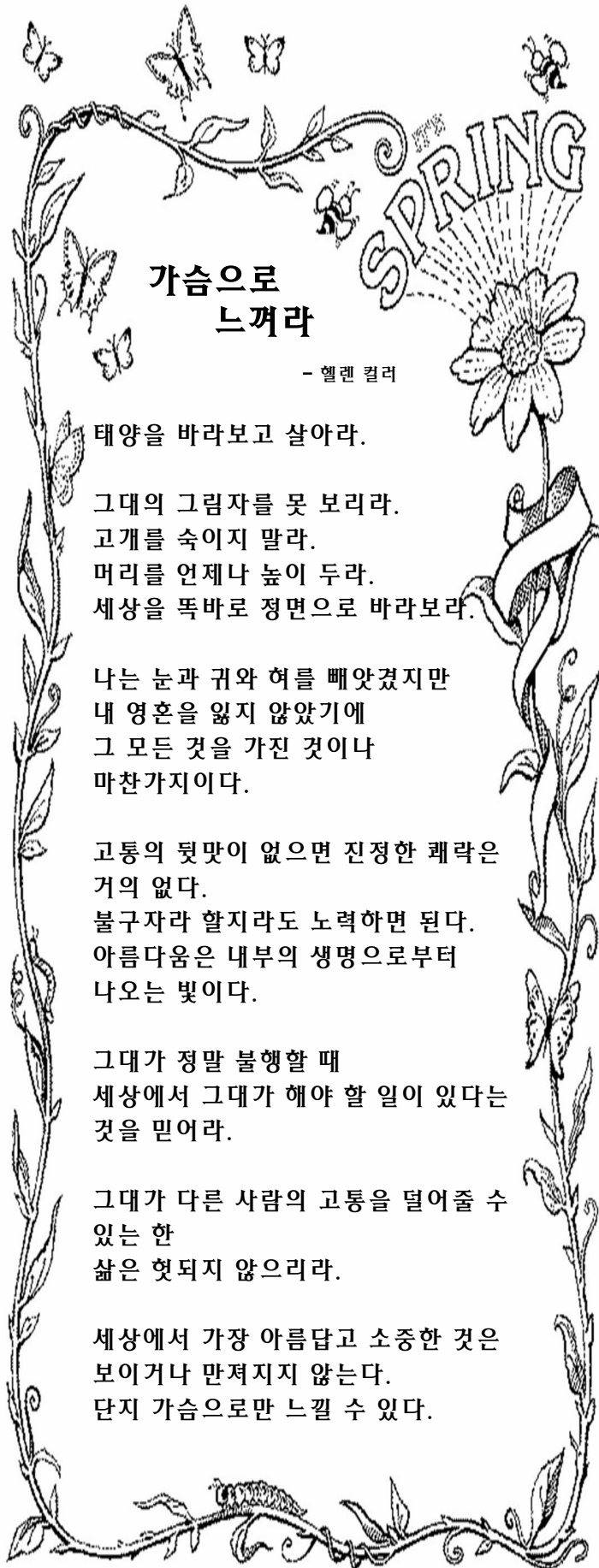
성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나 목적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숨결을 느꼈다. 매력과 경의로 가득 차 있는 피조물의 세계를 존경하며 경탄함으로써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프란치스코는 인간보다 자연이 하느님을 더 잘 인식하고 섬긴다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사물 위에 있지 않고 사물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었다.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오랜 전기들은 한결같이 그가 만물과 친구같은 일치를 이루었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도취된 자와 같았다고 묘사한다. ‘피조물의 노래’는 보편적 형제성의 명백한 표현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자유로움을 얻어 누리는 참된 행복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평화와 선’을 지향하여 불화와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심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가난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파괴와 남용을 포기하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있게하여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요구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계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듯이 유기체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자연의 일부로서 성장하고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며, 자연과 같은 형제 자매이며, 자연을 돌보도록 위탁 받은 청지기로서, 피조물의 세계에서 조종자이고 정보 전달자라는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양성교재 ‘라베르나’에서 발췌



가슴으로 느껴라

- 헬렌 켈러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말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은
거의 없다.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오늘만큼은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자'
무엇이나 자신의 욕망대로만 하려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몸을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자..
몸을 혹사 시키거나 절대 무리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력과 사고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

오늘만큼은 '남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남 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 보자..
정신 수양을 위해 두가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의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 보자'
때로는 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 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 시빌 F.페트리지-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5월 27-29일 쉐난도 국립공원에서 있을 메모리알데이 캠핑에 메릴랜드 글라라 형제회, 옥타비오 수사님, 카푸친의 토마스 수사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렉션을 지참하셔서 찾아오시는데 차고없기 바랍니다.
- + 5월 본당 교육관 축성식 관개로 5월 월례회는 한판섭 바오로 형제택에서 있겠습니다.
- + 5월 28일은 메모리알 데이 캠핑 때문에 구역 모임이 없겠습니다.
- + 서약피정이 7월8일 토요일 오전10시-밤9시까지 조로사 자매택에서 있겠습니다.
- + 이번 7월16일 입회/유기/서약 하실분은 신청서를 조마리아 양성담당에게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 CA의 이혁중 형제부부와 함께 다민족 문화부의 담당자인 소냐 자매 부부와, 필라델피아 형제회 회장, MD 글라라회의 김안드레아, 김이레네 그리고 한데레사, 송마리아, 조로사, 김미경 형제 자매가 MD의 우미가든에서 4월 28일 8시에 만나 2007년 오하이오주 스튜븐빌 대학에서 있을 다민족 문화 행사에 관해 의논 하였습니다.
- + 광 로사 자매님,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께서 한국방문중 정동수도원 책방에 들러 "COME AND SEE" 30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정정: 김안티모 신부님의 생일은 4월24일이 아니고 4월27일이었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7월16일 있을 입회/유기/서약 하실 분들을 위해 ...
- + 우리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 ...
- + 조로사 자매 모녀가 한국방문 중입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
- + 5월 20일은 김병두 베르나르디노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축하드리며 ...
- + 메모리알데이 캠핑이 자연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

5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15 PM - 월례회 / 신부님 특강 / 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마침: 65번 천상의 어머니

신자들의 기도

김아가다, 황수잔나, 강스텔라, 송마리아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김영자 켄마 5월2일

간식담당

5월: 윤요안나, 광로사, 송마리아
6월: 김아가다, 하데레사, 조로사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OFM